

# 농촌 다문화가족의 자립 수준 및 영향 요인 분석

양 순 미(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촌환경자원과 연구사)

## I. 문제제기

보건복지부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전체 여성결혼이민자 가구의 52.9%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 소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 다문화가족의 경우 상당 수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이 20~30대의 연령층에 해당되지만 저소득층으로서 생활기반과 수준이 낮고 취약하며 평균적으로 그들 가족의 생활수준에 대해 중하수준인 것으로 평가한다(양순미, 2008).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나 기타 사회수당의 적용만으로 농촌 다문화가족의 빈곤을 해결하려는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된 무분별한 복지수혜정책이 이들을 앞으로 40~50년 동안 복지수혜 그늘에서 의존지향적(依存指向的)인 생활을 해야 하는 위치로 전락시킬 수 있다. 더군다나 이들의 자라나는 2세대 아이들에게는 불필요한 수치심을 유발하고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농촌의 여성결혼이민자를 비롯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의존지향적(依存指向的)인 복지제도 보다 자립지향적(自立指向的)인 복지제도를 개발·적용함으로써 이들이 장기적으로 자립하며 인적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양순미, 2006a).

다시 말해 이들을 위한 복지적 지원의 최선은 무분별하고 단발성의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생활을 개선하고, 향상시키는 자립 역량을 북돋아 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들의 자립의 수준 및 자립에 필요한 요구, 자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자립의 수준 및 요구, 영향 요인을 분석하는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농촌지역의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그들의 자립 수준 및 이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이들을 위한 자립 지원 정책 및 방안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기초자료로 활용되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 II. 선행연구 고찰

### 1. 자립 및 관련 변인의 개념

일반적으로 자립은 ‘남에게 예속되거나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선다.’는 의미를 가지나 이러한 사전적인 의미 외에도 해석의 초점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Pearce, Brooks와

Quttz(1997)는 ‘자립능력’에 초점을 두고, 자립을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것’ 또는 ‘기본적인 복지 욕구 간의 갈등을 야기하지 않는 상태’로 정의했다. 허태현(2005)은 ‘실직상태에 있거나 극히 불안정한 생계수단을 가진 사람들이 자활 사업 참여를 통해 취업이나 창업의 기회를 갖고 이를 통해 독립적이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자립의 구성요소에 대해서도 타니구치아키히로 등(1999)은 신변·정신적·경제적·주거환경·사회적 영역으로 분류하여 제시하는가 하면 이상록(2007) 등은 신체적·심리적·사회적·경제적·정보적 자립으로 나누어 접근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자립을 농업·취업·창업활동 등 생산활동 참여를 통해 독립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성취할 수 있는 역량으로 정의하며, 자립의 하위영역은 경제적·정보화·사회심리관계·주거환경으로 나누어 접근하고 한다.

자립의지는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독립하여 정당한 지위에 서고자 하는 자기 발견적 의욕 또는 욕구를 의미한다(허태현, 2005). 오혜경(1998)은 자립의지를 스스로 지원 가능한 것과 같은 자신감의 개념으로 설명하였으며, 최종희(2009)에 의하면 자립의지는 자신감, 자아통제, 근로의욕으로 구성된다. 이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자립의지를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독립하고자 하는 태도로 정의하며, 이를 구성하는 요인으로 자신감, 자아통제, 근로의욕으로 나누어 접근하고자 한다.

사회적 지지는 일반적으로 타인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자원을 의미한다(Cohen & Hoberman, 1983). 사회적 지지를 받는 사람들은 부적인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력이 강화되고 사회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적응력이 손상되어 우울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Aneshensel & Stone, 1982). LaRocc, House & French(1980)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하면 할수록 그 상황에 밀접하게 관계된 지지 제공자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며, 가족관계 문제는 가족, 배우자, 친구 등에 의해 더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를 다문화가족의 부부가 자신에 대해 배우자가 지지하는 정도에 대한 인지 수준으로 정의하여 접근한다.

## 2. 자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징이나 개인의 가치관, 개인의 역량은 과업수행여부와 수행정도를 결정하고, 개인이 사회에 적응하고 자립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김남욱, 2008). 이경혜(2000)에 의하면 교육정도는 자립생활에 정적으로 작용하며 학력이 높을수록 자립 수준이 높았다.

자립과 사회적지지 정도와의 관계를 분석한 여러 선행연구(김순곤, 2003; 이경혜, 2000)의하면 사회적지지 정도가 높을수록 자립정도가 높았다. 모든 유형의 사회적 지지가 근로의욕, 자신감 등 자립의지에 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밝혀져(김명숙, 2007) 사회적 지지가 자립의지를 매개하면서 자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른 한편 김수정(2008)의 연구에 의하면 사회적지지는 빈곤가정 아동과 청소년의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주여성의 경제적 자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한 결과(임선희, 2010)에 의하면 가족관계는 경제적 자립준비도에 정적으로 유의하게 작용해 가족관계가 좋을수록 경제적 자립준비도가 높았다. 또한 경제적 자립에는 자신감이 유의미하게 작용하여 자신감이 높을수록 경제적 자립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립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자신감, 자아통제, 근로의욕과 같은 자립의지 요인들 또는 가족의 지지 요인들의 영향력을 분석한 연구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위와 같은 선행연구결과를 근간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 이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한국의 농촌 남성과 결혼해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중국, 베트남, 일본, 필리핀, 캄보디아 출신국 등의 여성결혼이민자와 남편이다. 이들 대상국중 중국, 베트남, 일본, 필리핀, 캄보디아는 통계청의 자료<sup>1)</sup>를 참고하여 출신국별 여성결혼이민자의 상대적 비율이 높은 순서를 기준으로 선정한 것이다.

조사는 2011년 8월 22일부터 9월 16일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계통추출에 의해 선정된 전국 187개 농촌생활지표 조사마을중 전국 8개도 42개 시·군 42개 마을을 재계통추출하여 해당마을과 인근 마을을 중심으로 총 391호 782명이 조사되었다.

이들에 대한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자료를 이용해서 42개 마을에 대한 농촌생활지표조사 현지 모니터들이 해당 농가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였으며 필리핀인 결혼이민자, 베트남인 결혼이민자, 캄보디아인 결혼이민자는 각각 영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로 번역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기기록하는 식으로 조사하였다.

#### 2. 척도

##### 1) 자립 척도

농촌 다문화가족의 자립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일본 Human Care Association의 자립생활지표를 토대로 국립재활원(김민정, 2002)에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자립 영역으로 구성한 척도, 국립재활원의 척도를 재구성하여 신체적·심리적·사회적·정보화·경제적 자립 영역으로 편성한 이상옥(2007)의 척도, 타니구치야키히로와 타케다야스하루(1999)의 자립의 하위영역 및 개념을 인용하여 총 25문항으로 자립 측정 척도를 구성하였다. 1차적으로 구성된 척도는 Principal Axis Factoring에 의해 oblique rotation을 적용하여 2회 회전한 후 요인 적재량이 .40이상인 항목만 선정하여 최종 4개 영역(정보화·경제·사회심리관계·주거환경) 20문항으로 완성하였다.

각 항목에 대한 응답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부터 ‘매우 그렇다(5)’까지 5점 Likert로 응답하도록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하위영역별 자립역량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척도의 신뢰도에 있어서 정보화 영역은 Cronbach's  $\alpha=.88$ , 경제적 영역은 Cronbach's  $\alpha=.88$ , 사회심리관계 영역의 Cronbach's  $\alpha=.78$ , 주거환경 영역의 Cronbach's  $\alpha=.85$ , 자립역량평가 척도의 총

1) 2011년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2001년 에서 부터 2011년 사이에 혼인한 여성결혼이민자는 베트남, 중국, 필리핀, 일본, 캄보디아 순서로 많으며 이들 5개국에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의 86.8%에 달한다.

체적인 Cronbach's  $\alpha=.85$ 로써 비교적 높은 수준의 내적일치도를 나타내었다.

## 2) 자립의지 척도

자립의지를 측정하는 척도는 김명숙(2007)의 척도를 활용하였는데 이 척도는 총 12문항으로서 자신감 4문항, 자아통제 4문항, 근로의욕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항목에 대한 응답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1)' 에서 부터 '매우 그렇다(5)' 까지 5점 Likert로 응답하도록 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하위영역별 자립의지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자립의지 하위영역중 여성결혼이민자의 자신감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77$ , 자아통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78$ , 근로의욕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72$ , 자립의지 총체적인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9$ 이었다. 남편의 자신감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7$ , 자아통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0$ , 근로의욕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78$ , 자립의지 총체적인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2$ 이었다.

## 3) 사회적 지지

본 연구에서 이용된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는 척도는 Zimet 등(1994)이 개발한 척도를 이상록(2007, 재인용)이 가족의 지지를 측정하는 6개 문항으로 재구성한 것으로서 이를 다시 5개 문항으로 수정 보완한 것이다. 각 문항은 자신에 대한 배우자(남편 혹은 아내)의 사회적 지지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1)' 에서 부터 '매우 그렇다(5)' 까지 5점 Likert로 응답하도록 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에 대한 배우자의 지지를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여성결혼이민자가 인지한 자신에 대한 남편으로 부터의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는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5$  이었으며, 남편이 인지한 자신에 대한 아내로 부터의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는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5$  이었다.

## 4) 기타

연령, 학력, 동거하는 가족원 등은 양순미(2001)의 척도를 이용하여 개방형으로 질문한 뒤 분석과정에서 학력은 초등학교졸에서 대졸 수준까지 연속적으로 재배열하고 가족원들은 가족형태별로 재조합하여 활용하였다.

## 3. 자료의 분석

총 391호 782명이 조사되었지만 미응답이 많아 분석자료로 활용하기에 부적절하거나 부부가 쌍으로 조사되지 않은 자료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378호 756명의 자료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분석과정에서 다문화가족의 자립 변인은 부부가 인지한 자료를 통합하여 가족점수화한 뒤에 이것을 다시 2로 나누어서 얻어진 2차적인 데이터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는 가족구성원 중에서 어느 한 사람을 통하여 가족변인을 측정하기 보다 다수의 구성원들을 연구에 참여시킴으로써 보다 풍부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얻는다는 주장(유계숙, 1996)에 근거한 것이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의 출

신국변인은 중국, 일본,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집단만 분석에 활용하고 나머지는 분석대상에서 통제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된 연구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SAS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기초통계량(빈도, %, 평균값)분석, t-test, ANOVA,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등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1. 조사대상의 사회인구학적인 특성

여성결혼이민자의 평균 연령은 일본 43.81세, 중국 37.43세, 필리핀 35.12세, 베트남 27.37세, 캄보디아 26.70세이었다. 남편과의 평균 연령차이는 일본이 약 5.2세로써 가장 적은 반면 캄보디아인 및 베트남인의 경우 약 17세로써 격차가 심했다. 중국과 필리핀인의 경우 이러한 차이는 약 10세 수준이었다. 농촌지역의 중년기 국내결혼 부부의 평균 연령차이가 약 3세이라는 점(양순미·정현숙, 2005; 양순미·유영주, 2002)을 고려해 볼 때 중국과 필리핀 여성결혼이민자 부부는 비교적 높은 연령 차이를 보이며, 베트남과 캄보디아의 경우 이러한 연령차이가 보다 극심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일본과 필리핀 여성결혼이민자의 학력은 전문대학을 중퇴한 수준으로써 고등학교를 중퇴한 수준인 한국인 남편의 학력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다.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는 고등학교를 중퇴한 수준으로써 한국인 남편들의 학력 수준과 유사하거나 낮았다. 이를 농촌지역의 중년기 부부를 대상으로 아내와 남편의 평균 학력수준을 비교한 연구에 비추어 볼 때(양순미, 2001) 국제결혼을 한 한국남성들은 농촌지역의 일반 중년기 가족의 남편들과 학력수준이 유사한 반면 여성결혼이민자들의 학력은 평균 중졸수준인 한국 농촌의 일반 중년기 가족의 아내들의 학력수준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거주기간은 일본인이 가장 높은 반면 캄보디아인이 가장 낮았다(<표 1> 참조).

<표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평균 분석

출신국가	내용	연령		학력		결혼이민자 거주기간
		결혼이민자	남편	결혼이민자	남편	
		M(S.D.)	M(S.D.)	M(S.D.)	M(S.D.)	
중국	37.43(8.34)	47.87(6.66)	2.62(0.94)	2.83(0.96)	104.84(54.87)	
일본	43.81(7.18)	49.04(5.88)	3.41(0.83)	2.69(1.14)	164.79(60.52)	
필리핀	35.12(7.43)	45.18(5.03)	3.82(0.93)	2.76(1.15)	97.23(50.93)	
베트남	27.37(4.36)	44.56(5.50)	2.38(0.86)	2.87(0.96)	48.78(25.25)	
캄보디아	26.70(3.40)	44.50(5.49)	2.19(0.63)	2.86(0.80)	46.64(21.19)	
계	34.02(8.87)	46.14(5.98)	2.88(1.05)	2.80(1.02)	91.06(60.32)	
<b>F값</b>	<b>75.88***</b>	<b>8.65***</b>	<b>43.23***</b>	<b>0.33</b>	<b>69.70***</b>	

\*\*p<.01, \*\*\*p<.001

## 2. 농촌 다문화가족의 자립 수준

### 1) 일반적인 자립 수준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출신국별로 농촌 다문화가족의 자립 수준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표 2> 참조), 총체적 자립수준은 평균 61.66~58.84점으로서 여성결혼이민자가 베트남인인 다문화가족이 가장 높았으나 일본인인 다문화가족은 가장 낮았다. 정보화 영역의 자립은 평균 15.51~13.39점으로서 필리핀인 다문화가족이 가장 높은 반면 캄보디아인 다문화가족이 가장 낮았다. 경제적 영역의 자립 수준은 평균 13.61~11.88점으로서 캄보디아인 다문화가족이 가장 높은 반면 일본인 다문화가족은 가장 낮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전반적으로 백분위 약 50점 수준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경제적 자립을 백분위 70점 수준으로 밝힌 선행 결과(임선희, 2010)와 다소 차이가 있었다. 사회심리 및 관계 영역의 자립 수준은 평균 27.66~25.31점으로서 중국인 다문화가족이 가장 높은 반면 필리핀인 다문화가족이 가장 낮았는데 이러한 차이는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것은 중국·일본·필리핀 여성결혼이민자의 적응 수준을 비교분석한 양순미(2006b)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로써 대다수가 중국조선족출신인 본 연구 조사대상의 중국인들이 한국생활에 언어 및 문화적 유사성으로 적응이 유리하여 상대적으로 이의 이질감이 큰 필리핀 보다 사회심리관계적인 자립수준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주거환경영역의 자립은 평균 6.74~5.69점으로서 캄보디아인 다문화가족이 가장 높고 베트남의 경우 가장 낮았다. 그러나 총체적 자립 수준, 정보화 및 주거환경영역에 있어서 출신국가별 다문화가족의 자립 수준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무의미하였다.

한편 하위영역별 자립 수준은 전반적으로 정보화 영역에서 가장 낮았고 이어서 경제적 영역 순서로 낮은 반면 사회심리 및 관계영역의 자립수준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농촌 다문화가족의 출신국별 자립수준

출신국 (사례수)	총체적 자립역량		정보화 영역		경제적 영역		사회심리 및 관계 영역		주거환경 영역	
	M (S.D.)	백분위	M (S.D.)	백분위	M (S.D.)	백분위	M (S.D.)	백분위	M (S.D.)	백분위
중국(83)	60.70 (9.73)	60.7	14.22 (4.74)	47.4	12.66 (3.91)	50.6	27.66 (3.54)	79.0	6.17 (2.01)	61.7
일본(61)	58.84 (10.08)	58.8	14.66 (4.71)	48.9	11.88 (4.37)	47.5	26.45 (3.17)	75.6	5.84 (2.18)	58.4
필리핀(77)	58.92 (9.57)	58.9	15.51 (4.68)	51.7	12.11 (3.80)	48.4	25.31 (3.81)	72.3	5.99 (2.16)	59.9
베트남(98)	61.66 (8.61)	61.7	15.20 (4.80)	50.7	13.42 (3.43)	53.7	27.35 (2.87)	78.1	5.69 (2.00)	56.9
캄보디아(44)	60.47 (9.61)	60.5	13.39 (4.40)	44.6	13.61 (3.28)	54.4	26.73 (4.20)	76.4	6.74 (1.91)	67.4
F값	1.33		1.92		2.73*		5.59***		2.18	

\* $p<.05$ , \*\*\* $p<.001$

## 2) 다문화가족의 생활 특성에 따른 자립 수준

<표 2-1>에 의하면 조사대상 농촌 다문화가족의 11.23%가 기초생활보장금을, 15.55%가 의료보장을, 14.52%가 신용불량이나 파산면제를 경험한 바 있었다. 또한 46.63%가 자녀교육 및 노후준비를 하고 있으며 57.22%가 주택개보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기초생활수급 및 의료보장 수혜 여부 등 다문화가족의 특성에 따라 자립 수준을 분석한 결과(<표 2-1> 참조), 기초생활수급 또는 의료보장 수혜 대상 다문화가족은 비수급 대상 가족 보다 총체적 자립 및 4개 하위영역의 자립 수준이 모두  $P=.05\sim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또한 신용불량이나 파산경험이 있는 다문화가족은 그렇지 않은 가족 보다 경제적 영역과 주거환경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자립수준이 낮았다. 자녀교육 및 노후준비를 하는 가족은 그렇지 않은 가족 보다 총체적 자립 및 4개 하위영역의 자립 수준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주택개보수 필요성을 인지하는 가족은 그렇지 않은 가족 보다 총체적 자립, 경제적 영역, 주거환경 영역의 자립 수준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표 2-1> 농촌 다문화가족 생활 특성에 따른 자립수준

변인	집단(사례수)	총체적	정보화	경제적	사회심리 및	주거환경
		자립역량	영역	영역	관계 영역	영역
		M.(S.D.)	M.(S.D.)	M.(S.D.)	M.(S.D.)	M.(S.D.)
기초생활수급 여부	받음(42)	52.87(10.02)	12.79(4.48)	9.85(3.60)	25.17(4.76)	5.07(2.15)
	안받음(332)	61.08( 9.11)	14.95(4.70)	13.07(3.73)	26.93(3.50)	6.13(2.04)
	t값	-5.44***	-2.82**	-5.29***	-2.32*	-3.16**
의료보장수혜 여부	받음(58)	55.10( 9.31)	13.21(4.32)	10.91(4.08)	25.61(4.73)	5.38(2.26)
	안받음(315)	61.21( 9.35)	15.04(4.73)	13.06(3.75)	26.99(3.44)	6.12(2.02)
	t값	-4.58***	-2.75**	-3.97***	-2.12*	-2.52**
신용불량/파산면제 경험	있다(54)	59.11(8.42)	14.94(5.24)	11.71(3.55)	27.34(2.75)	5.11(2.12)
	없다(318)	60.32(9.76)	14.63(4.62)	12.85(3.88)	26.67(3.85)	6.17(2.04)
	t값	-0.86	0.45	-2.02*	1.56	-3.52***
자녀교육 및 노후준비 여부	한다(173)	63.77(9.44)	15.75(4.64)	14.26(3.91)	27.37(3.54)	6.39(2.00)
	안한다(198)	57.00(8.63)	13.85(4.64)	11.36(3.28)	26.14(3.74)	5.65(2.10)
	t값	7.22***	3.95***	7.77***	3.26***	3.43***
주택 개보수 필요성	필요(214)	58.86(9.08)	14.75(4.73)	12.07(3.81)	26.89(3.65)	5.15(1.95)
	불필요(160)	61.82(9.89)	14.70(4.70)	13.55(3.78)	26.45(3.69)	7.11(1.64)
	t값	-3.00**	0.09	-3.74***	1.15	-10.26***

\*\* $p<.01$ , \*\*\* $p<.001$

### 3. 농촌 다문화가족 부부의 자립의지 및 사회적 지지 특성

#### 1) 자립의지

<표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여성결혼이민자의 자립의지의 수준을 분석한 결과 총체적 자립의지는 평균 45.75~40.82점으로서 중국인 여성결혼이민자 집단에서 가장 높고, 캄보디아인 집단에서 가장 낮았다. 이와 같은 양상은 자아통제, 근로의욕 하위영역에서도 유사하였으며 이러한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런데 자신감 하위영역의 자립의지 수준은 중국이 가장 높은 반면 필리핀이 가장 낮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p=.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출신국에 따른 남편들의 자립의지 수준은 총체적 자립의지, 자신감·자아통제·근로의욕 하위영역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 2) 사회적 지지

<표 3>에 의하면 여성결혼이민자가 인지한 자신에 대한 남편으로 부터의 사회적 지지 수준은 베트남인 여성결혼이민자 집단에서 가장 높은 반면 일본인 집단에서 가장 낮게 인지했으며 이러한 차이는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남편이 인지한 자신에 대한 아내로 부터의 사회적 지지 수준은 필리핀인 아내를 둔 남편집단에서 가장 높은 반면 캄보디아 아내를 둔 남편 집단에서 가장 낮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3> 농촌 다문화가족 부부의 자립의지 및 사회적지지 특성

출신국 (사례수)	총체적 및 하위영역별 자립의지				사회적지지 M(S.D.)
	총체적 M(S.D.)	자신감 M(S.D.)	자아통제 M(S.D.)	근로의욕 M(S.D.)	
중국(83)	45.75(7.41)	15.89(2.61)	15.07(3.03)	14.78(2.82)	18.66(4.10)
일본(61)	41.52(7.85)	14.31(2.47)	13.90(3.13)	13.31(3.00)	16.80(3.93)
결혼 이민 여성 필리핀(77)	41.06(8.89)	13.81(3.35)	13.56(3.27)	13.70(3.19)	17.82(4.93)
베트남(98)	45.06(7.28)	15.47(2.86)	14.97(2.76)	14.62(2.83)	19.41(3.98)
캄보디아(44)	40.82(7.68)	14.20(2.52)	13.36(3.46)	13.25(2.89)	17.34(4.78)
F값	6.74***	7.79***	4.83***	4.26**	4.34***
중국(83)	45.89(8.11)	15.99(3.08)	15.54(3.19)	14.36(2.79)	18.23(3.72)
일본(61)	46.07(8.35)	15.92(3.15)	15.52(2.81)	14.62(3.22)	17.82(4.25)
남편 필리핀(77)	45.01(7.05)	15.57(2.47)	15.17(2.75)	14.27(2.59)	18.97(4.47)
베트남(98)	46.14(7.91)	15.80(2.96)	15.56(2.71)	14.79(3.11)	17.35(4.18)
캄보디아(44)	45.50(7.77)	15.93(2.73)	15.45(2.87)	14.11(2.70)	16.27(3.34)
F값	0.27	0.25	0.25	0.62	3.69**

\*\* $p<.01$



#### 4. 자립에 작용하는 관련변인들의 효과

농촌 다문화가족의 자립에 작용하는 관련변인들의 영향력을 규명하기 위해 위계적인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먼저 회귀분석 가정의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Durbin-Watson계수를 산출한 결과 1.67~1.82이였으며, 각 회귀모델 마다 변인들의 분산확대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s)을 확인한 결과 모두 3.56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회귀모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투입된 관련 변인들은 전체모델의 42.5%를 설명하고 있었다(<표 4> 참조).

위계적 회귀분석결과에 의하면, 농촌 다문화가족의 자립에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변인은 남편의 근로의욕( $\beta=.30$ )이며, 이어서 아내의 연령( $\beta=-.28$ ), 남편의 교육수준( $\beta=.21$ ), 아내의 근로의욕( $\beta=.15$ ), 아내가 인지하는 남편의 지지수준( $\beta=.11$ ), 아내의 교육수준( $\beta=.10$ ), 아내의 출신국( $\beta=.09$ )의 순으로 유의하게 작용하였다.

즉 농촌 다문화가족의 자립 수준은 남편이나 아내의 근로의욕이 높을수록, 아내의 연령이 낮을수록, 남편이나 아내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아내가 인지하는 자신에 대한 남편의 지지가 높을수록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립수준이 높다는 선행연구결과(김남욱, 2008; 이경혜, 2000), 사회적 지지가 자립정도에 정적인 효과를 갖는다는 여러 선행연구 결과(김수정, 2008; 김순곤, 2003; 이경혜, 2000), 근로의욕은 근로활동을 통해서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려는 근로동기를 부여한다(김영미, 2002)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변인들의 상대적인 중요성은 모델 2에 새로 투입된 자립의지 관련 변인들에 의해 모델 2의 설명력이 26.4%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져 농촌 다문화가족의 자립에 자립의지 변인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4> 농촌 다문화가족의 자립에 관련 변인들이 미치는 영향 특성

변인	통계량	모델1	모델2	모델3
		B( $\beta$ )	B( $\beta$ )	B( $\beta$ )
출신국(중국1, 나머지 4개국 0)		3.39( .15)**	2.09( .09)*	2.01( .09)*
아내의 연령		-.34(-.32)***	-.27(-.25)***	-.30(-.28)***
남편의 연령		.02( .01)	.07( .04)	.11( .07)
아내의 교육수준		1.60( .18)**	1.02( .11)*	.92( .10)*
남편의 교육수준		2.00( .21)***	1.96( .21)***	1.99( .21)***
아내의 한국거주기간		.00( .02)	-.00(-.02)	.00( .01)
아내의 자신감			.26( .08)	.08( .02)
아내의 자아통제력			.25( .08)	.31( .10)
아내의 근로의욕			.55( .17)**	.50( .15)**
남편의 자신감			.17( .05)	.20( .06)
남편의 자아통제력			-.06(-.02)	-.10(-.03)
남편의 근로의욕			1.09( .33)***	.99( .30)***
아내인지 남편의 지지 수준				.23( .11)*
남편인지 아내의 지지 수준				.18( .07)
intercept		59.47***	24.61***	20.56***
F Value		10.23***	19.73***	18.01***
Adj R-Sq(Adj R-Sq 변화량)		.147	.411(.264)	.425( .014)
D-W 계수		1.67	1.79	1.82

\* $p<.05$ , \*\* $p<.01$ , \*\*\* $p<.001$

##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농촌의 여성결혼이민자를 비롯하여 다문화가족을 위한 자립지향적(自立指向的)인 정책 방안을 개발하는 선행 작업의 차원에서 이들의 자립의 수준 및 자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결론을 제언하면

첫째, 하위영역별로 농촌 다문화가족의 자립 수준을 비교해 보면 정보화 영역의 자립수준이 전반적으로 가장 낮은 반면 사회심리 및 관계영역의 자립수준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모든 다문화가족 대상 교육에 인터넷 활용 과목을 필수화 하거나 정보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하는 방안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둘째, 여성결혼이민자와 남편의 교육수준은 모두 농촌 다문화가족의 자립수준에 정적으로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다른 한편 기초생활수급 또는 의료보장 수혜 다문화가족의 자립수준은 비 수혜대상 다문화 가구 보다 자립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 또는 의료수혜 대상 가구에 대해 금적 또는 물적 지원에 병행하여 자립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고 이의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농촌 다문화가족이 자립에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변인 집단은 자신감, 자아통제, 근로의욕으로 구성된 자립의지 변인이었다. 따라서 우리사회가 보다 다양한 일자리 창출, 균등하고 공정한 기회제공 등의 가치실현으로 자립수준이 낮은 다문화가족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동기화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본다.

본 연구는 농촌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자립수준을 규명하고 이의 영향요인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본 연구의 결과는 이들을 위한 자립 지원 정책 및 방안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기초자료로 활용되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문헌

- 김남욱(2008). 가출청소년의 자립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중장기 청소년 쉼터를 대상으로,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명숙(2007). 사회적지지가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자립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민정(2002). 국립재활원 자립생활프로그램 평가. 재활의 샘 15호, 101-127.
- 김수정(2008). 빈곤가정 아동,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및 사회적 지지가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 아동복지학 25호, 9-38.
- 김순곤(2003). 중증지체장애인의 자립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영미(2002). 자활지원사업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여성참여자를 대상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순미(2001). 농촌가족의 건강성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양순미(2006a).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적응정책의 모색. 한국자치행정연구 제5호, 111-127.
- 양순미(2006b). 농촌 국제결혼부부의 적응 및 생활실태에 대한 비교분석: 중국, 일본, 필리핀, 이주 여성 부부중심. 농촌사회, 16(2), 151-179.
- 양순미(2008). 농촌 다문화가족이 농업 및 사회참여활동 프로그램 개발 연구. 2008농촌진흥청 국립 농업과학원 시험연구 보고서.
- 양순미 · 유영주(2002). 농촌부부의 배우자에 대한 역할 기대, 역할수행평가, 역할상이성이 결혼만 족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9(1), 75-91.
- 양순미 · 정현숙(2005). 농촌가족의 건강성에 관한 종단적 비교연구. 한국가족관계학 회지, 10(3), 27-46.
- 유계숙(1996). 가족테이터의 통계적 산출 및 분석방법에 관한 탐색적 고찰.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1), 11-20.
- 오혜경(1998). 장애인 자립생활 실천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3, 39-63.
- 이경혜(2000). 지체장애인의 자립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상록(2007). 중증뇌성마비장애인의 자립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사 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 임선희(2010). 결혼이주여성의 경제적 자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동양대학교 정보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종희(2009). 사회적지지가 자활대상자의 자립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공공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타니구치아키히로 · 타케다야스하루(1999), 『자립생활은 즐겁고 구체적으로』, 나눔의 집.
- 허태현(2005). 자활산업 참여자의 자립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 Aneshensel, S. & Stone, J. D. (1982). Stress and depression : A Test of the buffering model of social support. Arch. Gen. Psychiatry, 39, 1392-1396.
- Cohen, C. S. & Hoberman, H. M.(1983).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 as buffer of life change str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3(2), 99-125.
- LaRocco, J. M., House, J. S. & French, John R.P.(1980). Social Support Occupational Stress and Health.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1, 202-218.
- Pearce, D., Brooks, J. & Quttz, J. H.(1997). The Self-Sufficiency Standard for Pennsylvania-se-lected family types. Wider Opportunities for Women, Inc, Women's Association for Women's Alternatives.



## 농촌 다문화가족의 자립 수준 및 영향 요인 분석

이 정 화(전남대 교수)

이 논문은 농촌 다문화가족의 빈곤수준이 높기 때문에 이들이 빈곤에서 벗어나 자립하는 것이 다문화가족 입장에서, 우리사회의 복지비용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보고, 다문화가족의 자립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저자의 의도처럼 우리사회의 다양한 복지대상들은 자립의지를 갖고 노력하고, 우리사회는 이들의 자립의지, 근로의지를 북돋고 다양한 관련 지원을 통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생활인을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우리사회가 한정된 재원으로 보다 효율적인 복지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복지대상자들의 자립의지가 매우 필요하기 때문이다.

자립에 관한 국내의 연구들의 연구대상을 살펴보면 대체로 **자활참여자의 경제적 자립, 장애인의 자립생활, 빈곤아동 또는 아동보호시설 퇴소아동의 자립준비, 모자보호시설 가구주 연구, 그룹홈 시설 아동의 자립의지** 관련 연구들이 있어서 실제로 시설보호, 장애인, 빈곤가정 관련해서 연구가 되어오고 있다. 이 논문들은 이들의 자립의지 혹은 자립에 사회인구학적 특성(특히, 경제적 측면, 월 소득, 월저축 액 등), 정부의 소득지원여부, 심리적 특성(우울감, 성역할의식, 자존감...), 사회적 지지 등을 관련변수로 연구하고 있다.

학술대회 발표논문을 준비하다보면 시간 제약으로 충분한 검토를 하지 못하고 발표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논문도 몇가지 측면에서 보완할 점이 눈에 띄었고, 이러한 보완작업에 대한 조언을 함으로써 토론자의 역할을 하고자 한다.

첫째, 중요변수인 주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서 ‘자립수준’, ‘영향요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측정했는지 명확하지 않다. 자립수준은 정보화, 경제, 사회심리관계, 주거환경이라는 4영역, 20문항 5점 리커트 척도라는 것 외에 각각이 의미하는 바가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주거환경자립수준은 무엇을 말하는 지 ...). 이부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연구결과 어떤 영역에 자립수준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어도 그 값이 의미하는 바를 알기 어렵다. 특히 문제제기 부분에서는 ‘경제적 자립’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4가지 자립영역에 같은 비중을 두고 분석하는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도 필요할 것 같다.

관련변인에 관해서도, 선행연구고찰에서는 사회적 지지, 가족관계, 자신감, 자립의지(자신감, 자아통제, 근로의욕)이 언급되어 있는데, 연구결과에서는 이주여성 출신국, 기초생활보장 수급여부, 의료보장수혜여부, 신용불량/파산면제경험, 자녀교육 및 노후준비 여부, 주택개보수 필요성에 따라 자립수준을 비교하였고, 또 회귀분석에서는 출신국, 아내와 남편의 연령, 교육수준, 자신감, 자아통제력, 근로의욕을 각각 보았고, 아내의 한국거주기간, 아내인지 남편의 지지수준, 남편인지 아내의 지지수준을 독립변수로 구성하였다. 결국, 관련변인들로 어떤 변수를 선정하였고, 왜 이러한 변수들이 선정되었는지 하는 내용이 충분히 기술되지 않았고, 연구결과에서도 분석의 연계성이 부족해서 이 연구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았다.

따라서 관련변수에 대한 개념정의와 분류를 명확히 하고, 관련변수를 변수 군으로 묶는 작업을 하고(예, 개인적 특성, 경제적 특성, 자립의지..), 그에 따라 분석한다면 보다 이해하기 쉽고 정리된 형태로 논문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분석에 있어서도, 최종분석이 위계회귀분석인데, 위계회귀분석을 하는 이유와 각각의 모델이 의미하는 바가 구체적으로 기술된다면 연구의 의의를 더 살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특히 사회적 지지가 위계회귀분석의 마지막모델에 들어가서, 연구자는 다문화가족의 자립수준에 사회적지지의 역할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다문화가족의 자립에 이러한 사회적지지의 역할을 결론부분에서 더 부각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여기서 사회적 지지라는 개념보다는 ‘배우자 지지’가 보다 적합한 개념인 것으로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은 비교적 농촌의 대표성 있는 샘플이면서, 다문화가족 부부를 쌍으로 연구한 것이다. 사실 부부 data를 모으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고, 이를 dyad로 분석하는 작업 또한 만만치 않다. 왜냐하면 부부 대상 자료는 거의 모든 변수에 두 사람의 자료가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을 대표로 할 것인지, 따로 분석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 연구자는 가족단위의 자립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부부의 자립수준의 값을 평균(?-통합해서 2로 나눔)해서 종속변수로 사용하고 있다. 이런 방법뿐만 아니라, 부부 각각 점수의 차를 이용해서 이러한 자립수준이나 다른 변수들의 부부지각의 차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있는 작업일 것으로 생각된다.

전국 농촌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391부부, 782명에 대한 조사가 쉽지 않은 만큼 논문보완작업을 통해 연구자의 의도대로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자립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논문으로 완성하기 바란다.